

뉴욕증시, 16일 '대통령의 날' 맞이해 휴장

등록 2026.02.17 07:21:38 | 수정 2026.02.17 07:42:28



[뉴욕=AP/뉴스시스] 미국 뉴욕증시는 월요일인 16일(현지시간) 휴장했다. 사진은 2024년 12월 17일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 전경. 2026.02.17.

[서울=뉴스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뉴욕증시는 월요일인 16일(현지시간) 휴장했다.

NBC뉴스,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이날 '대통령의 날(Presidents' Day)'을 맞이해 휴장했다.

대통령의 날이란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공휴일이다.

뉴욕증시의 다음 휴장일은 오는 4월 3일이다. 이때에는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인 '성 금요일(Good Friday)'을 맞이해 휴장한다.

앞서 지난 13일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발 공포로 혼조 마감했다.

AI 발전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나스닥종합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상승했다.

